미륵불 앞 실력 펼친 미래 K-POP 스타들

봉은사, 10월 22일 끼 경연대회
총 14팀 본선 무대…대상엔 오엉
"젊은 세대에 불교 가까이 계기"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 봉은사는 10월 22일 경내 미륵광장서 '2023 전국 끼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한복을 멋들어지게 입고 구성진 가락을 뽐낸 이규빈(20) 학생과 팀원 모두 유학생으로 구성된 에이오엠원(AOM1), 최연소 참가팀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눈빛으로 압도한 카리스마 CM크루, 왁킹으로 무대를 휘어잡은 포항 소녀 김예나(18) 학생, 여심저격에 나선 꿀보이스 포커스 온 등. 전국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끼를 마음껏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22일 경내 미륵광장 특설무대에서 '2023 전국 청소년 끼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끼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불교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불교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 불교 인재 양성의 기반 구축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주)판타지오가 후원사로 참여해 예선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9세부터 24세까지 국내 거주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 총 112개 팀(노래 65, 댄스 47팀)이 참가 신청했고, 1차 동영상 심사와 2차 라이브(Live) 경연을 거쳐 가요 부문 7팀, 댄스 부문 7팀, 총 14팀이 이날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 참가자들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자 객석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경연 심사는 이연정 판타지오 이사와 박상미 판타지오 신인개발팀장, 김영오 안무디렉터가 맡아 가창력과 무대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연정 이사는 "전문성이 뛰어난 무대들이었다. 분위기를 잘 즐기고 자신감 있게 해준 친구들에게 점수를 더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고, 김영오 안무디렉터는 "무대 구성과 기술력이 예사롭지 않다.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박상미 팀장은 "예선부터 지금까지 심사했는데 얼마나 더 발전한 무대를 선보였는지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그룹 네이처와 루네이트가 축하무대에 올라 경연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경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2등 금상에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주어졌다. 은상은 부문별로 각각 200만원, 동상에도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나머지 8팀에 참가상 각 50만원이 주어졌다.

1등 대상의 영예는 창작 안무로 무대를 꾸민 3인조 댄스팀 '오엉'에게 돌아갔다. 오엉(신채원 · 박경서 · 손민이)은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한 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주최 측에 감사하다"며 "사찰에서, 특히 웅장한 불상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처음인데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를 떠나 서스럼없이 재미있게 즐겼다. 앞으로도 많은 사찰에서 끼 경연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며 "종교계 · 문화계 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댄서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케이팝(KPOP)곡에 맞춰 군무를 선보인 리틀라자(김소정 · 김유서 · 김예슬 · 방여진 · 이서영)와 독특한 음색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김아영(19) 학생이 각각 은상 댄스 · 노래 부문에 선정됐다. 동상은 박정현의 '미아'를 열창한 서한별(21) 학생과 사투리가 매력적인 경북 영천의 MF크루(김미소 · 조주희 · 고운비 · 김미래)가 받았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무대를 꾸며줘 기쁘고 즐겁다"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 갈등 해결엔 제도보다 상호 이해가 우선"

홍선기 동국대 교수, 10월 23일
불사연 '현대사회 · 불교' 세미나
종교 간 이견 조정 방안 제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10월 23일 서울 전법회관서 '현대사회와 불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 간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제도적 방안보다는 각 종교별로 상대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현실적 해결책으로 인식됩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10월 23일 서울 전법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주최한 '현대사회와 불교' 학술세미나에서 종교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해외의 종교 갈등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홍 교수는 유럽과 북아일랜드(개신교 · 카톨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유대교 · 이슬람), 시리아 내전(이슬람 내부), 스리랑카 30년 유혈 분쟁(불교 · 힌두교),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전(기독교 · 이슬람), 아시아와 카슈미르(힌두교 · 이슬람) 등 세계 대표 종교 분쟁을 설명하며, 종교 간 다툼에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낳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종교의 자유를 갖기 위해 800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음을 알아야 한다"며 "종교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어떤 폭력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종교사회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싱가포르의 행정을 소개했다. 홍 교수는 "싱가포르는 각 종교별로 이어온 전통 명절 모두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이 국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결과 현지 사회에서 나와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기시한다는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단일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다종교국가"라고 말한 홍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과 동시에 다수의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원칙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특정종교가 그 종교의 제도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타 종교의 반발을 불러오고, 종교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교 간 갈등은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가 아니다"며 "자타불이 정신을 강조하는 불교계가 종교 간 공존과 화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복희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 객원교수는 '현대 한국의 종교차별 역사와 현황'을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이해 · 변용됐는지 사례를 살폈다. 임 교수는 "종교편향 또는 종교차별 시비로 인한 종교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철저한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종교라는 요소를 분리,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민석 동국대 법과대학 대우교수는 국내 종교 관련 행정 위법 사례를 언급하며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정착시키려면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률적 조정과 해결도 중요하지만 종교 간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술세미나는 이상훈 학국교수불자연합회장이 맡았고, 박문수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이사와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이 전체토론 논평자로 참여했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오늘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종교 갈등 및 차별의 역사와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종교 관련 행정 위법 사례 등을 살피고자 한다"며 "종교 사이의 이견이 법률 및 행정의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규범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 활동집 발간

2019~2023년 활동내역 담겨
12대 핵심종책 이행현황 점검
주어사 · 천진암 자료집 발간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 활동자료집이 발간됐다.〈사진〉

활동자료집은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이 취임한 2019년 11월부터 임기를 마무리한 2023년 11월까지 12대 집행부가 시행하고 추진한 다양한 종책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12대 회장 본각 스님의 발간사 △제12대 핵심종책 이행점검 △제12대 집행부 발자취 △주요활동 △발표자료 △사진으로 보는 제12대 집행부 △언론으로 보는 제12대 집행부로 구성됐다.

'주요활동' 부분은 제12대 집행부가 4년간 시행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내실강화 △재정보완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재정비 △비구니승가 수행 △비구니승가 교육 △비구니승가 복지-설문조사 △자비나눔 △대사회활동 △문화포교 △국제교류 △비구니승가 특화분야로 분류했다.

제12대 핵심종책 이행점검 부분은 제12대 집행부 출범 당시 선언했던 핵심종책의 이행도를 표로 분석하고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결과물이다. 5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하는 24개 세부항목을 중점으로 하되 각 항목에 집약적으로 구성된 내용의 이행현황도 추가해 보다 포괄적으로 다뤘다.

이행점검 결과 세부항목의 실행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불이행 항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글로벌인재 양성(단기 해외어학 및 수행연수, 장기유학 프로그램 도입)'과 비구니 승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위원회 신설' 두 건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행됐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아쉬움이 남는 항목들도 적지 않아 이행되지 못한 이유와 과제를 분석해 눈길을 끈다.

부록에는 역대 원로의장 스님과 역대 회장 스님들에 대한 소개, 12대 집행부가 제 · 개정한 회칙과 법령 등이 게재됐다. 또 4년간 전국비구니회의 다양한 사업과 불사에 마음과 원력을 내준 후원자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은 발간사에서 "제12대 집행부가 시행한 종책과 여러 활동들은 그 자체로 전국비구니회의 역사"라며 "활동자료집이 차기 집행부의 활동 데이터이자 지적자원으로서 이후 전국비구니회를 이끌 역량 있는 분들께서 지난 걸음을 되짚어 점검,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성과는 계승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스님들의 노력과 원력의 결실로 오늘의 전국비구니회가 있듯이, 본 백서에 담겨진 자료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길 염원한다"며 "부족한 부분, 다하지 못한 일들은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듭 삼배의 예를 올린다"고 전했다.

12대 집행부는 활동자료집과 함께 주어사 · 천진암 관련 자료집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주어사 천진암이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두 사찰을 배경으로 한 불교와 천주교,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현 정부(여주시, 광주시)까지 그들의 사업과 사건들 그 대응 활동을 모았다. 임은호 기자

불교평론 뇌허학술상에 조병활 박사 선정

〈조론 연구 조론 오가해〉로
오는 12월 23일 시상식 예정



한국불교학의 태두 뇌허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불교학자를 시상하기 위해 제정된 뇌허학술상의 올해 수상자로 조병활 박사(前성철사상연구원장 · 사진)가 선정됐다.

불교평론은 "'2023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조병활 박사가 선정됐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조병활 박사는 구마라집의 수제자로 대승교의를 정립한 승조(僧肇, 384~414)의 저술인 〈조론〉에 대한 연구와 역주서(譯註書)들을 묶어 〈조론연구, 조론오가해〉(전6권)을 발간해 학계에 "〈조론〉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을 수상한 조병활 박사는 "위진남북조시대 이래 시대마다 〈조론〉을 주석한 책이 반드시 출간됐다는 사실만 봐도 중국불교 사상사에서 〈조론〉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며 "〈조론연구〉와 〈조론오가해〉가 출간된 지금은 〈중론오가해(中論五家解)〉 번역에 힘을 쏟고 있다.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중론오가해〉 번역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6시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신중일 기자

상설행자교육원, 출가 진흥 돌파구 될까

조계종 출가장려위 2차 회의…행자 설문조사 검토

다수 행자, 육체적 피로감 호소
절반 이상 하산하고픈 마음 들어

지속적인 출가자 감소로 인해 일반사찰과 교구본사에서 행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에 따라 조계종이 '상설행자교육원' 개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계종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위원장 혜일, 해인사 주지)는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자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상설행자교육원 개설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교육원이 출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교육원 조사에 따르면 매년 행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행자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육체적 피로감을 꼽았다. 그리고 하산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스스로의 인내가 대다수였으며, 참회 · 기도, 스님과의 상담 등도 일부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교육원은 오래전부터 상설행자교육원의 개설을 고민해왔다. 입문교육 6일, 수계교육 14일인 현행 행자교육 기간을 2~3개월로 늘려 체계적인 집체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

출가장려위원회는 상설행자교육원 개설에 긍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먼저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한 것은 습의사 수급이었다.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은 "습의사를 충원할 때 일반적으로 경력과 신규를 절반씩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비구 습의사는 모두가 신규였다"며 "한 회에 2~3개월간 운영하는 행자교육원에서 활동할 인력 확보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어깨춤 덩실덩실…'제2회 소림문화제'

소림사, 10월 24일 소림문화제
정관 스님 "주인공은 어르신들"



경로의 달 10월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연 한마당이 펼쳐졌다.

서울 소림사(주지 정관)는 10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회 소림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문화제는 소림사가 지역 나눔문화 실천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림사 주지이자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오늘의 주인공인 어르신들이 문화제를 통해 청춘을 느끼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작지만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궁화국악예술단의 태평가와 뱃노래, 경기민요 메들리 등 신명나는 무대로 막을 올린 이날 공연은 퓨전국악연주팀 별하의 가야금 · 해금 등 전통악기 연주로 절정에 올랐다. 300여 객석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공연을 즐겼다. 이어 오디션 프로그램인 MBN 보이스킹 출신 가수 윤도가 '보릿고개'와 '사랑의 트위스트' 등을 부르자 어르신들은 연신 박수를 쏟아내며 큰 호응을 보냈다.

이날 소림문화제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소림사 홍여래성 신도회장, 종로구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임은호 기자

"불교성전, 이젠 귀로 들으세요~"

조계종 출판사, 불교성전 오디오북 출간



대한불교조계종이 2021년 출간한 '불교성전'이 오디오북으로 제작됐다. 불자들이 부처님 핵심 가르침이 담긴 '불교성전'을 일상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불교성전' 오디오북은 '불교성전'의 모든 내용을 듣기 편안한 목소리로 독경한 음성을 제공하는 소리책이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을 비롯해 윌라, 밀리의서재 등 오디오북 콘텐츠 업체를 통해 종이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각 지역 도서관에서도 오디오북 대여로 만나볼 수 있다.

조계종출판사는 "부처님 핵심 가르침과 생애, 보살행, 불국토 구현 등 불교에 관한 핵심 내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남아낸 '불교성전'을 읽는 것은 불자로서 실천해야 할 최상의 덕목"이라면서 "이젠 '불교성전' 오디오북을 경청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성전'은 2019년 4월 조계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편찬 작업이 시작됐다. 종정예하를 증명으로, 대덕스님과 각계 전문가 30여 명이 공의를 모아 2021년 2월 첫 종단본 '불교성전'이 출간될 수 있었다. 임은호 기자